

집중돌파 도약준비



2016 집단교섭 의견일치

9월 29일(목) 지부 2016년 집단교섭 의견일치가 이뤄졌다.

합의내용은 1) 지부 교육위원 활동시간 신설(각 사별 1명, 연간 64시간) 2) 작년 신설한 확대간부수련회에서 상집과 대의원 분리 실시조항 삭제 3) 2008년 지부 파견 합의사항 이행(미이행 사업장) 4) 위험성 평가를 노사공동으로 실시하고 시기, 인원, 방법 등 구체적인 진행에서 노동조합과 논의할 것을 확정, 5) 협약의 유효기간과 효력을 표기한 것 등 5가지다. 임금은 6개 사업장(계양전기, 대원산업, 신한발브, 에스제이엠, 우창정기, 주연테크)의 인상안을 합의하고, 미합의된 두원정공, 현대케피코는 의견접근 시 합의서에 삽입하기로 했다.

질 높은 조합활동 디딤돌

19차에 이르는 긴 교섭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것은 ‘지부 교육위원 활동시간’이었다. 조합원들은 지난 3년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일관된 의견을 말했다. 노동조합은 ‘주변에서부터 지지받고 영향력을 가진 사회 집단으로 발전해야’하며, 그를 위해 ‘사회적 인식을 바꿀 혁신적 실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의 개선을 위해 ‘질 높은 교육과 선전을 통해 조합원 의식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올 해 지부 교육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동시에 공동요구안에 월 32시간의 교육위원 활동시간 신설을 요구했다. 사측은 요구의 취지를 조합활동시간확보로 협조하게 받아들여 타임오프와 사업장별 편차 등을 이유로 마지막까지 사용자 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9차 교섭에서 두 차례 정회와 축소교섭을 거쳐 연간 64시간의 합의를 도출했다. 지부는 21세기 혁신과 창조적 노동조합활동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바람을 담아, 질 높은 교육을 만드는 디딤돌을 놓았다. 또한 지난 한 해 활발했던 노동안전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 간 회사가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위험성 평가를 노동조합의 참여와 양질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척시켰다.

집중돌파 2016

집단교섭 의견일치로 긴장을 놓기는 이른다.

두원정공은 9월 대주주가 태양기계로 바뀌었다. 지회는 오랜 조사와 토론을 거쳐 29일(목) 우리사주를 설립, 실험을 시작했다. 수많은 난관에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두원정공 조합원들은 이번에도 스스로 전망을 만드는 담대한 투쟁을 이어간다. **현대케피코지회**는 통상임금, 주간연속2교대 등 묵직한 쟁점을 걸고 본격 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룹사 교섭을 병행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일관된 목표와 태세로 투쟁한다. 9월 28일(수)에는 주/야 4시간 파업을 벌였고 10월 투쟁이 이어진다. 현대 그룹계열사라는 조건으로 매년 지부 전체 투쟁과 시기를 맞추는 게 어렵지만, 지부전체 활동과 신생노조 설립투쟁에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왔다. 신생 **대창지회**도 전면파업 45일을 넘기며 중요한 고비를 지나고 있다.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버텨보려는 회사는 열심히 대체생산과 분열작전을 펴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굳건한 자세로 10월 투쟁을 준비 중이다. 현재진행형 투쟁들의 결정적 시점에 총력을 쏟아 2016년 투쟁을 집중돌파하자.

2016년도 경기지부 집단교섭 의견일치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는 2016년도 경기 지부 공동요구안 및 임금인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일치하고 서명날인 한다.

1. 2016년 지부 공동요구

1) 지부 교육위원 활동시간
회사는 노사관계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부 교육위원을 각사별로 1명을 인정하며,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연간 64시간 한도내에서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2) 확대간부 수련회

1. 회사는 년 1회(8시간) 지부 주최 확대간부 수련회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사업장별 특성상 따라 노사회의를 통해 상집과 대의원 단위로 일정을 분리 실시할 수 있다.
2. 확대간부 수련회 일정은 최소 2주전에 통보한다.

3) 지부 파견 합의사항 이행담보

경기지부 관계 사용자는 지부 파견과 관련한 2008년 경기지부 집단교섭 기 합의내용을 준수한다.

4) 위험성 평가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7호(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해 년 1회 위험성 평가를 노사 공동으로 실시한다.
2.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성 감소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3.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시기, 방법,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사별로 논의하여 실시한다.

5) 협약의 유효기간 및 효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만료되더라도 경선결과시까지 지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 2016년 각 사업장별 임금인상액

회사명	제시안	회사명	제시안
계양전기	월 기본급 88,000 원	에스제이엠	월 기본급 83,000 원
대원산업	월 기본급 90,000 원	우창정기	월 기본급 42,000 원
두원정공	원	주연테크	월 기본급 30,000 원
신한발브	월 기본급 30,000 원	현대케피코	원

3. 부속합의

2016년도 임금인상이 미 합의된 사업장은 교섭을 통해 논의하고, 의견 불일치 내용은 본 합의서에 삽입한다.

2016. 9. 29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
경기지부장 정규전	사용자 대표 이만홍

2017 도약준비

끝을 알 수 없던 폭염만큼 한국사회도 들끓는 용광로 같다.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자 정권은 국가 폭력은폐를 위해 부검을 시도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서울대병원 앞을 지키고, 후원물품이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쏟아진다.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유를 ‘병사’로 조작했지만, 권력과 돈에 빌붙은 선배들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의대생들의 항의대자보에 800명 넘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동참했다. 금속노조는 지부별 장례식장 농성사수조를 편성하고 현장에서의 추모행동부터 시작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의료적 판단보다 돈과 권력이 먼저인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가족과 국민들의 공공병원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며 돈을 앞세워 노동자를 경쟁시키는 성과퇴출제를 반드시 막겠다고 파업에 나섰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9월 27일 전면총파업을 선포하고 국민적 지지 속에 파업투쟁 중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응원메시지가 전철역마다 줄을 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사드 배치, 무능한 지진 대처 등 시민들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하는 가운데 우병우,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 측근 비리가 줄줄이 터지면서 정권과 여당은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코미디 뺨치는 쇼와 안보장사로 혼란과 위기감을 키워 반전을 노린다. 현대차지부 파업엔 ‘긴급조정’까지 꺼내들었다. 2017년 대선을 앞둔 지배세력의 조바심은 더 많은 폭력과 무능, 쇼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안전과 평화, 노동권과 존엄을 바라는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와 투쟁에 힘을 실어 2017년 도약을 준비하자. 더 나은 세상의 디딤돌이 되자.

故 백남기 농민 추모와 장례식장 침탈 저지를 위한 행동

10월 6일(목) 지부 집행위원 농성

10월 10일(월)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계획 수립

10월 11일(화) 사업장 상근자 등 간부부터 농성 결함

